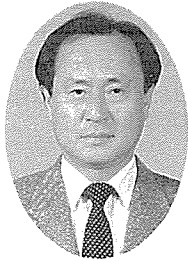


뉴질랜드 낙농·유가공업계 견문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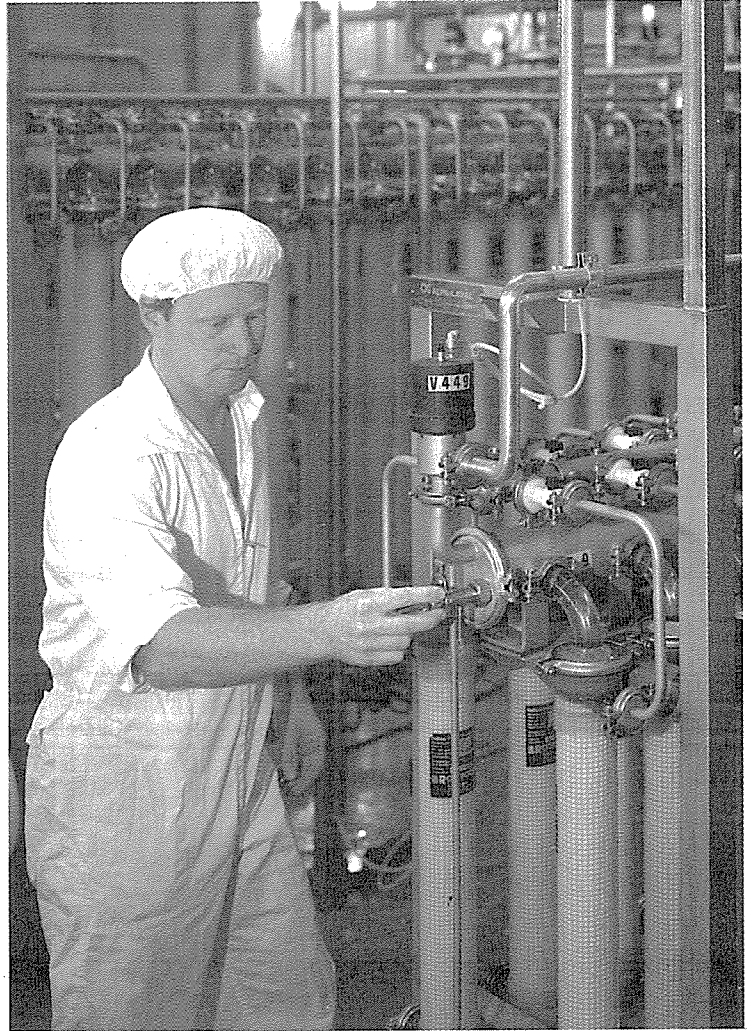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의 목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젖소, 면양, 육우 방목지가 전국 토의 51%를 차지하며 그외 10%미만이 곡류, 과수 및 채소, 산림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산악지 및 미개발지역이다.

”



유철호

(農經研 축산경제실장)



“나라전체가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의 거대한 牧場”

뉴질랜드하면 낙농업이 연상될 정도로 뉴질랜드의 낙농업은 세계적인 낙농국으로 발전하여 왔다.

필자는 지난 10년13일부터 20일까지 뉴질랜드 정부 초청으로 국내 낙농업계 인사들로 구

성된 뉴질랜드 낙농업시찰단의 한 사람으로 뉴질랜드 낙농업계를 돌아 볼 기회를 가졌다. 시찰단은 10월13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 타이페이와 싱가포르를 경유 뉴질랜드의 남쪽섬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를 거쳐 북쪽섬에 있는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하였으며, 비행시간만 13시간 가량 걸렸다. 절후로 보면 이른 봄으로 공항건물을 나섰을 때 바람이 심하여 서울의 이른 봄날씨 같았다. 마중나온 뉴질랜드 낙농위원회 직원 두분과 우리 교포 통역 한분을 합쳐 우리 일행은 11사람으로 불었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간단히 점심을 마치고 오클랜드 근교에 있는 뉴질랜드 우유공사 소속 공장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이 시작되었다.

뉴질랜드까지 왕복시일을 빼면 실제 업체를 돌아볼 기간은 4일이 채 못되지만 짧은 기간 이나마 목장, 유가공공장 등을 답사하고 뉴질랜드 낙농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외무통상부 관리, 농수산부 관리와의 면담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가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직접 보고 들었다.

지도상으로 보면 뉴질랜드는 위치한 방향이나 크기를 가깝이에 있는 대륙인 호주와 비교하여 보게 되며, 호주 동남쪽 망망 남태평양상에 떠 있는 조그만 섬나라로 보인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면적은 남한의 2.7배 정도이며 북쪽섬 및 남쪽섬으로 불리는 두 개의 섬으로 되어있다. 적도와 남극의 중간쯤에 위치하여 사계절의 절기가 우리 나라와는 정반대로, 우리 나라에서 겨울철이 그곳에선 여름이다. 북쪽섬의 북쪽지방 여름은 아열대 날씨며, 지역과 계절에 따라 상당한 기후차이가 있다. 주 낙농지대인 북쪽섬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일조량이 많고 강우량이 목초성장에 알맞게 분포되어 있어 낙농에는 이상적이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목장

총 인구는 340만 가까이된다. 이 중 74퍼센트가 북쪽섬에 살며, 제일 큰도시인 오클랜드(인구 82만)와 수도 웰링톤(인구 32만) 등이 북쪽섬에 있다. 경제가 유제품을 비롯한 농산물수출에 크게 의존하나 국민의 대부분이 도

시에 살고 있다. 일인당 국내 총생산액은 미화로 13,000달러 수준으로 높고, 농업이 국내 총생산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87년 7.9퍼센트로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하나의 목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젖소, 면양, 육우, 방목지가 전국토면적의 51퍼센트를 차지한다. 그 외는 10퍼센트 미만이 곡류, 과수 및 채소, 산림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산악지 및 미개발지역이다. 낙농이나 면양사업이 모두 북쪽섬에 치우쳐 있다.

시찰단이 방문한 곳은 북쪽섬 중부 낙농밀집지대에 있는 유아용 조제분유 및 치즈공장(Waitoa), 분유공장(Te Rapa), 버터 기타 乳脂생산공장(Morrinsville과 Te Puke), 젖소개량관련기관 및 낙농목장, 사슴목장 등이었고 비행기로 북쪽섬 남단에 있는 수도 웰링톤으로 가서 낙농위원회를 방문 하였다.

뉴질랜드의 연간 총 우유생산량은 730만톤으로 유럽 공동체 국가 전체의 생산량보다는 적지만 미국보다는 많은 양이다. 농후사료를 전혀 쓰지않고 목초에만 의존하여 시기적으로 목초생산량에 따라 유량이 달라지는데, 5월부터 약 3개월간의 겨울철에는 거의 모든 젖소가 동시에 건유기로 들어가며, 목초가 남아도는 시기에 만들어 두었던 엔실레지로 겨울을 지낸다. 시기적으로 10월은 목초가 가장 많이 생산되어 유량이 피크에 달하는 시기여서 시찰

“

착유우 2백30만마리, 능기당 160마리, 호당 초지면적 66ha인 뉴질랜드의 연간 총우유생산량은 730만톤으로 유럽공동체국가 전체의 생산량 보다는 적지만 미국보다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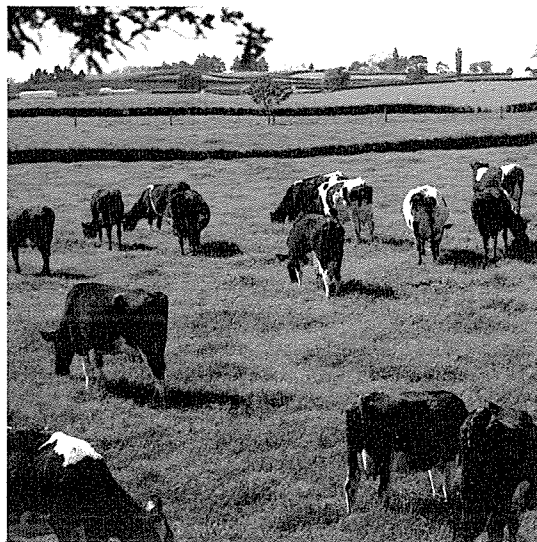
”

단이 방문한 농장 공장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착유우는 230만 마리, 농가당 착유우는 160마리, 초지면적은 호당 66헥타이다. 젖소는 연중 초지에 방목하며 축사나 폐수처리시설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목장관리는 경영주를 포함 두 사람 정도이다.

평균 유지방률 4.72%

착유우 마리당 연간 산유량은 3,000kg를 조금 넘는 정도이어서 우리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아 의아스러울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두당 산유량보다는 유지방이나 고형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유지방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으면 농가에서 납유시에 유대가 깎인다. 이는 유지방이나 고형단백질이 중요하지 물이 많으면 무게가 필요없이 무거워져 수송비나 가공비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농가에서의 우유생산은 단위면적의 초지에서 가능한 한 많은 유지방과 고형단백질을 생산하는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초지관리에 철저할 수 밖에 없으며, 젖소의 품종도 산유량 중심의 홀스타인보다는 보다 체



“

우유생산기간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유가공공장은 매일 24시간 풀가동되다시피 하며 겨울철이 되면 거의 모든 젖소가 동시에 건유기에 들어가 시유 생산공장을 제외한 모든 유제품 생산공장들은 약 2개월동안 쉰다.

”

구가 작고 높은 유지방의 우유를 생산하는 프리지언과 저지품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왜 산유량 보다는 유지방이나 고형단백질 등 “알짜” 함량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왔는가는 수출과 국내 소비패턴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우유생산량의 85퍼센트가 유제품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국내 소비량 15퍼센트 중에서도 버터나 치즈 등 유제품으로 소비되는 양은 9퍼센트이고, 시유로 소비되는 양은 나머지 6퍼센트에 불과하다. 즉 생산된 우유가 대부분 유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하니 유지방이나 고형단백질 함량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평균 지방율이 4.72퍼센트라니 쉽게 믿어지질 않았다.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는 인근 유가공공장에서 처리되는데 이들 유가공회사들은 납유하는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농가들이 주주이다. 농가들은 한달에 한번 예상 유제품의 가격에 따라 유대를 받게 되는데(우리 나라 원유값의 1/6~1/7정도로 낮다) 뉴질랜드 전역내 유가공회사는 19개가 있고 가공공장은 45개로 우유생산량이 많은 곳에 집중되어 있다. 우유생산기간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유가공공장은 매일 24시간 가동되다시피하며 겨울철이 되면 거의 모든 젖소가 동시에 건유기에 들어가 시유 생산공장들을 제외한 모든 유제품 생산공장들은 약 2개월 동안 쉰다.

생산된 유제품은 뉴질랜드 낙농위원회를 통하여 수출된다. 낙농위원회는 순수 낙농가 단체로 낙농제품 수출전담기구로 1961년 설립되

었다.

유제품 수출액 25억불

낙농위원회에서는 각 유가공공장들과 원유의 생산에서 가공, 운송, 포장, 저장 및 수출관련 사항들을 협의하여 유제품이 차질없이 수출되도록 관련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낙농가들에 대하여 젓소품종개량이나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한 낙농위원회에서는 낙농생산연구 및 제품의 품질관리분야 연구를 위하여 외부 연구기관과 농수산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간다. 예를 들면 낙농위원회는 낙농연구소에 관련업체들이 요구해온 제품의 개발,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는 가공방법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위촉하며 낙농경영개선 관련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낙농위원회에서는 농가단계에서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분야와 경영지도에서부터 낙농제품의 개발이나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외부위촉 또는 자체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사업을 총괄하여 오고 있다.

유가공공장 및 회사들을 다니며 인상깊게 느낀 점은 전 생산과정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가 철저하다는 점과 시설자동화였다. 치열하여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수 품질생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어디서나 돋보였다. 농수산부에서도 이 분야에는 낙농위원회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농수산부에서는 농가단계에서의 원유의 질과 위생문제, 유가공공장에서의 가공방법, 제품검사 및 등급화에 관한 사항을 입법권을 통하여 제도화 함으로써 유제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기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 100여국에 유제품을 수출하며, 유제품수출액은 연 25억불이다. 이는 뉴질랜드등 총 상품수출액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5퍼센트로 뉴질랜드

“

세계 1백여국가에 유제품을 수출하는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액은 연 25억달러 정도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5%이며, 이는 뉴질랜드 총상품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

우유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의 1.5퍼센트인 점을 고려하면 국제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은 주목할 만하다.

낙농위원회에서는 수출용 낙농제품의 구매 및 수출을 네개의 품목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버터와 크림제품판매과에서는 매년 25만톤 수출로 5억~7억불 가량의 판매고를 올리며, 주요시장로서는 영국이다. 최근에 중동과 소련시장에의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치즈과에서 10만톤, 2억5천만~3억불 어치의 각종 치즈를 주로 일본과 미국에, 분유과에서는 40만톤, 6억~9억불 상당의 분유를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나라에, 그리고 카제인과 유장제품 등은 단백질제품과에서 판장하며,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일본, 서유럽제국이며 수출물량은 카제인 6만톤, 유장제품 2만톤 수준이며 수출액은 3억~5억불 정도이다.

낙농위원회에서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세계 여러나라에 50여개의 합작 또는 직접투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유제품의 포장, 2차가공, 현지생산, 유제품의 수출입업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과일주스, 비료, 양고기 무역 등 낙농과 관련없는 품목에도 참여하고 있다.

50여개국과 합작투자

뉴질랜드 낙농업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수출로 활력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매우 시사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영국과의 역사적 유대로 영국에 필요한 만큼 유제품수출이 가능하였으나, 1970년대 초 영국이

유럽공동체(EC) 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영국에 수출은 큰 제약을 받게되어 시장 다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유제품을 비롯한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1984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면서 전 경제체제가 교과서에 있는 이론 그대로의 자유시장, 자유무역체제로 개편되면서 농축산업분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생산장려를 위한 면양부분의 보조금을 철폐했고 유제품 수출품의 수송비 절감을 위해 국내 운송이나 부두선적 관련 부두노동조합의 부조리에 과감하게 손을 대었고, 관련 국가업무의 민영화등으로 보다 비용절감과 자유경제체제로 개편하였다.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제한제도를 철폐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지금까지 7년 정도 지속하면서 노동생산성의 증가나 제조업의 수출증가, 물가안정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총생산액은 계속 떨어지고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여 자유경제체제로 개편에 따른 비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낙농관련 인사들은 뉴질랜드 낙농업은 정부의 지원없이 우수제품을 경쟁적인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수입국들의 수입규제가 완화되면 수출은 크게 신장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감은 과거 몇년 동안 자유경쟁 정책으로 다져진 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는 보다 많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을 수입토록 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낙농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시유의 품질 개선이나 소비확대를 위한 시장확대에 그들의 기술을 전수할 의향을 강력하게 비추고 있다. 즉 우리 나라 유제품시장이 계속 커질테니 뉴질랜드산 고품질의 유제품이 들어오더라도 시유중심의 국내 낙농업에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뉴질랜드가 20여년전 일본에 처음 치즈를 수출하였을 때 상황을 예로 들었다. 즉 치즈가 처음에는 일본사람들의 식

생활에는 생소한 식품이어서 소비가 안되었으나, 이제와서는 일본국내 치즈소비가 늘고 해외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었으나 일본의 낙농업의 성장에 피해는 없었다는 견해이다.

60년대부터 협력 시작

우리나라는 1960년대 뉴질랜드 정부의 기술 지원사업으로 평택부근에 시범낙농목장이 설립되었고, 1970년대 초반 전남 및 중부지역 기술 지원사업 등 기술협력을 받아왔고 MASSEY대학에는 한국낙농수련생을 위한 과정을 설치하는 등 뉴질랜드 정부는 우리나라 낙농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낙농업계가 취약한 생산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서는 뉴질랜드로부터 종래의 기술지원사업을 통한 부분적인 기술전수 뿐만 아니라, 오늘의 뉴질랜드 낙농이 있기까지 뉴질랜드의 낙농가, 가공업체,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등은 꼭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분야 인사들 간에 보다 빈번한 교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